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에 돌봄마을 시범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복지과  
2022.4.28.

화순군 건설과  
2022.4.29.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지역의 주민,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농촌 돌봄마을을 조성한다. 농촌 돌봄마을은 사회적 약자이면서 경제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농업, 즉 사회적 농업을 매개로 마을 단위에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의료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의료복지시설과 사회적 농장 및 여가활동을 위한 배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해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고, 농촌 자원을 활용한 휴식산업을 연계해 수익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소재의 시·군·구 2개소를 선정하고자 지난 3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으며, 서류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전라남도 화순군과 경상북도 성주군을 최종 선정하였다. 전라남도 화순군은 폐광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와 지역 내외의 돌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마을 모델을 제안하였고, 경상북도 성주군은 지역의 돌봄 수요와 자연·환경 등 입지 여건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성이 큰 구체적인 돌봄마을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화순군과 성주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91억 원과 지방비 91억 원 등 모두 182억 원을 지원받는다. 1년차에는 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비에 6억, 2~3년차에는 제반 비용과 농장 및 관련시설 기초공사비 등을 포함하는 기초공사 비용과 의료·복지시설, 농장, 야외활동, 임시 거주 주택 등 설치에 85억 원을 지원받아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구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화순군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계획도  
출처: 화순군, (2022).  
화순군, 동면에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3년간 222억  
투입, 4월 29일  
보도자료.